

구조 분석을 통한 구성적 가치평가의 본질 탐색

송 재 홍*

〈 목 차 〉

- I. 들어가기
 - II. 가치평가이론의 주요 개념
 - III. 가치평가의 구성 절차
 - IV. 가치평가의 구조 분석
 - V. 논의 및 결론
- ※ 참고문헌

I. 들어가기

최근의 심리학자들은 기계 은유에 기초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탈이론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내러티브적 접근방식이나 개인의 의지와 신념이 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간주관적인 접근방식을 주장하여 설득력을 얻고 있다(Parry, 1997; Smith, 1997). 이 분야의 학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해체'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담론에 붙여 논의하여 왔으며, 오늘날 교수 및 상담을 중핵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학교교육 분야에서 '구성주의'(von Glasersfeld, 1989)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제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한편, 개인의 가치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통적 접근방식 역시 객관주의의 틀에 갇혀서 학문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제한하였으며, 그 결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론가와 실무자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송재홍, 1999a-c; Howard & Conway, 1986; Hermans & Hermans-Jansen, 1995). 무엇보다도 개인의 가치 평가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식은 개인을 가치평가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채 한낱 평가받는 대상으로 객체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과 특이성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자기반성과 변화의 기회마저 제한한다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개인의 정의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Hermans와 그의 동료들(Hermans, 1987, 1998; Hermans & Hermans-Jansen, 1995; Hermans & van Gilst, 1991)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고안하여 심리치료 및 상담 실체에 적용하여 왔다. 그는 자기를 일련의 체계적인 가치평가 시스템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치평가(valuation)란 개인이 자신의 일상적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험을 말한다. 그의 가치평가이론은 인간을 동기유발된 이야기꾼으로 가정하고 있는 맥락주의 은유(Sarbin, 1986)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개개인의 경험, 시스템에서 경험의 배열, 그리고 경험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된 자기이론이다. 그는 개별적-구체적 사례연구법(Hermans, 1988)을 적용해서 개인에게 자신의 특수한 경험을 탐색하여 다수의 가치평가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객관적인 양적 비교는 물론 정의적 양상분석이라고 하는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개인의 가치평가는 자아정체감의 문제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 심층적인 자기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변화를 촉진하는 상담 대화의 중개 자료로 활용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Hermans의 가치평가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가치평가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가치평가의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우선 가치평가이론의 기본 개념과 가치평가의 구성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고, 가치평가의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비교적 상세히 논의한다. 이 연구는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를 기초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자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치료적 중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II. 가치평가이론의 주요 개념

1. 맥락주의 은유 : 동기 유발된 이야기꾼으로서 인간

우리는 자주 틈만 나면 누군가에게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맥락주의에서는 인간을 동기 유발된 이야기꾼으로 본다. 말하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할만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맥락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일체의 시간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을 취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삶에 의미를 던져왔다. 심리학에서 스토리나 설화는 좀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Sarbin(1986)은 설화(narrative)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행위의 전말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보았으며, 우리의 환상과 백일몽, 무성 스토리, 우리의 계획과 기억,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과 증오까지도 설화에 의해서 조직된다고 제안하였다.

맥락주의는 과학적 심리학의 전통적 은유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근본 은유이다. 그것은 결코 사건들을 형식주의에서처럼 유목화하거나 기계론에서처럼 인과관계로 정렬함으로써 어떤 틀에 고정시키지 않으며, 또한 유기체론에서와 같이 예측이 가능한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맥락주의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삶이 변화되는 방향이 반드시 예측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맥락주의는 스토리 혹은 설화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것의 중심 요소는 오직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그 위치가 정해질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맥락주의는 정교한 사건들의 지속적인 구성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그 각각은 이전의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상황의 구조는 물론 의도적인 존재로서 세계 또는 마주보고 있는 배역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끊임없이 변한다. 종종 이들 배역이 사랑, 증오, 일치 혹은 불일치의 관계에 들어설 때, 그들은 마치 어떤 단계에서 주인공과 반역자로서 작용하는 것처럼 서로 정반대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위는 오직 예측할 수 없는 실재를 함께 구성하는 반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때에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심리학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들(가령, James, 1890, Sarbin, 1986)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설화적 성격 때문에 *I*와 *Me*를 구분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 왔다. 입 밖으로 표명된 주격 대명사 *I*는 작가를 나타내는 반면에, 목적격인 *Me*는 배역이나 설화 인물을 나타낸다. 사람은 그 자신이 어떤 곳을 여행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작가로서 그 자신을 배역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가로서 자기, 곧 *I*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Me*를 주역으로 삼고 또 *Mine*의 일부인 다른 인물(가령, “내 아내”, “내 친구”,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나의 적”)을 반역자로 삼아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자기 설화의 구성은 *I*가 미래의 *Me*를 상상할 수도 있고 과거의 *Me*를 재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의 과거가 현재를 구성하듯이, 우리의 현재 또한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자기 설화와 가치평가의 구성

어떤 스토리가 있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그 밖의 어떤 이에게 그 스토리를 이야기 하는 이가 있게 마련이다. 스토리를 엮어내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화자와 청자의 호혜성인데, 이것이 담화(dialogue)로 이어진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구성하는 담화의 형식에는 상상적 담화와 현실적 담화의 두 가지가 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들 형식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나란히 뒤섞인 채 간주관적인 교환(intersubjective exchange)의 과정을 구조화한다. Watkins(1986)는 상상적 담화가 우리 세계에 대한 설화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걸음으로는 침묵하고 있을 때조차도 비평가, 부모, 양심, 신(神), 거울 속의 그림자, 죽은 이의 사진, 영화나 꿈속의 인물, 아기 혹은 애완 동물 등과 의사소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친구를 방문할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그와 실제로 마주치기 전에 상상 속에서 그를 만나며, 또한 헤어지고 나서도 그와 나눈 대화의 일부를 되새긴다. 상상적 상호작용은 분명히 현실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일정한 파급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설화 접근의 기저에는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이 흐르고 있다. 첫째, 스토리는 실재에 대한 지각과 상상력의 힘을 모두 인정한다. 스토리는 사실과 허구를 결합하는 반면에, 이야기 전달은 현실적 담화와 상상적 담화를 포함한다. 둘째, 공간과 시간은 스토리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스토리는 항상 사건들의 일시적인 체제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의미심장하게 관련짓는 줄거리 구조를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스토리는 주역과 반역자로서 하나의 실제적인 공간이나 상상적인 공간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배역들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가치평가는 가치평가이론의 중심 개념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일상적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험을 말한다. 가치평가이론에서는 자기를 “가치평가의 체제화 과정”으로 이해한다(Hermans, 1987, 1998). 과정이라는 말은 인간 경험의 역사성을 내포한다. 사람들은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시·공간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로 향한다. 체제화라는 말은 사람이 그의 시·공간적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지향하고 또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에 차별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복합적인 전체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치평가의 몇 가지 본질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송재홍, 1999C).

첫째, 가치평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설화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적절한 의미 단위로 찾아낸 어떤 경험 사실을 내포한다. 그것은 성찰적인 개인의 시각에서 긍정적(유쾌한), 부정적(불쾌한) 또는 양가적인(유쾌하면서도 불쾌한) 가치를 지니는 의미 단위이다. 그것은 소중한 기억, 어려운 문제, 친애하는 인간, 현실적인 목표나 도달할 수 없는 이상, 왜곡된 꿈, 친구와의 중요한 대담, 그리고 유의미한 타인의 예기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현상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의 담화에서 행해지는 자기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단일의 설화로 구조화된 체제 속으로 조직된다.

둘째, 가치평가는 자기의 과정이다. 즉, 개인은 “*I*가 *Me*를 안다”와 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따라서 가치평가의 개념은 자기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I*와 *Me*의 상호작용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 James(1890)에 의하면, *I*는 “아는 자기(self-as-knower)”와 같고 *Me*는 “알려진 자기(self-as-known)” 또는 “경험적 자기(empirical self)”와 동일하다. *I*는 순전히 주관적으로 경험을 체제화하고 해석한다. 아는 자기의 연속성은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에 대한 감각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반면에 *Me*는 개인이 그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가령, 그의 신체와 정신력은 물론 그의 옷과 집, 아내와 자녀, 조상과 친구, 명성과 업적, 토지와 우마, 그리고 요트와 은행계좌 등)으로 구성된다. Sarbin(1986)은 주격 대명사 *I*가 작가를 나타내는 반면에 목적격인 *Me*는 배역, 등장인물, 설화 인물을 나타낸다고 제안함으로써 *I*-*Me* 구분을 하나의 설화 구조로 번역하였다. 가치평가는 전형적으로 작가로서

I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연루된 배역으로서 **Me**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엮어내는 의미 단위이다. 마찬가지로, Hermans(1987)는 가치평가를 아는 자기의 선택, 해석 및 체제화 과정으로 본다. 동시에 그것은 이 과정의 대상 혹은 결과로서 알려진 자기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개인이 그의 생활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실은 모두 하나의 가치평가로서 이해될 수 있다. 가치평가는 자기반성적 정신작용의 결과로서 개인적인 가치 혹은 의미를 지니는 어떤 것이다.

셋째, 가치평가는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발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James(1890)는 “생각은 끈임 없이 변한다”고 하였다. Merieau-Ponty(1945/1962) 역시 시간이 경험의 특징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경험 자체는 “삶이 영위된 시간”이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이 하나의 “총체적인 관념”을 지니고 시간상으로 그의 사적인 과거, 현재 및 미래를 의미하는 하나의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기반성적 의도는 개인이 그의 과거, 현재 혹은 미래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이는 곧 가치평가가 오직 어느 한 순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해서 파악될 때에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의 경험과 미래의 예측으로부터 그 의미를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치평가는 시·공간적으로 지향된 하나의 체제화 과정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

3. 스토리의 주제로서 동기와 가치평가의 정의적 함축성

스토리는 세계에 유목적적으로 순응하는 동기 유발된 배역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소설, 영화, 요정이야기, 신화 및 연주곡을 통해서 알아낸 것과 같은 스토리는 질투, 복수, 비극적인 영웅심, 부정행위, 불가능한 사랑, 아동기의 순결, 헤어질 수 없는 우정 그리고 차별대우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체제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는 제한된 수의 기본적인 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자기 설화의 기본 주제는 사계절의 주기와 같은 자연계의 순환 운동이나 진보-안정-퇴보와 같이 선형적 관계의 발달에서처럼 다양한 관점에 기초해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스토리 주제의 분류는 배역의 심리적 동기에 기초를 둘 수도 있다. 심리적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Hermans(1988)는 집합적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주제를 개인적 수준에서의 심리적인 동기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의 가정은 집합적 스토리 속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주제 - 영웅심과 사랑 - 가 있다는 점과 이들 주제가 개개

인의 심리적 동기 속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 동기가 구별될 수 있는데, 자기도모(곧, 자기유지 및 자기확장)를 위한 투쟁과 타자접속(곧, 환경이나 타인들과의 접촉 및 결속)에 대한 열망이 그것이다.

요컨대, 개인적 스토리와 집단적 스토리 모두에서 순전히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건들을 하나의 체제화된 전체 속으로 변형시킨다. 설화의 주제는 줄거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조직 원리로 작용하며 또한 어떤 사건을 다른 것들보다 좀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강조하기 위한 준거로서 작용한다. 스토리 주제와 심리적 동기는 사건에 일관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흐르면서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져버린다.

가치평가이론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가치평가가 하나의 정의적인 함축성(곧, 감정가)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평가의 정의적 구성요소가 자기 시스템의 기능을 발현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재적 구조와 표면적 구조의 구분을 도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가치평가가 하나의 정의적인 함축성(곧, 감정가)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가정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특정한 사실들이 하나의 정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함의한다. James(1890)는 “자기감정(self-feelings)”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으며, Rogers(1951) 역시 자기와 감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Hermans(1987)는 개인의 가치평가가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각의 가치평가는 특정한 가치평가를 특징짓는 정의적 양상 혹은 정념 패턴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이 최근에 친구와 함께 경험한 산행에 대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가치평가로서 “지난달에 한라산 암벽을 등반한 추억”이라고 최종적으로 진술한 경우를 보자. 이러한 경험은 “고조된 흥분”, “강한 연대감”, “약간의 죄의식”과 같은 정념 패턴에 의해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우리는 특정한 가치평가에 어떤 종류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알게 될 때 가치평가 자체에 관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치평가이론에서는 또한 인간을 동기 유발된 이야기꾼으로 보는 근본 은유에 입각해서 소수의 기본적 동기가 어떤 가치평가의 정의적 구성요소로서 잠재적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하고 있다(Hermans & van Gilst, 1991). 예컨대,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고무적인 성공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자기도모 동기의 만족이 이러한 감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기본적 동기는 개인들 사이에서 두루 유사하며 또한 개인

들 내부에서 연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반면에 표면적 수준에서 가치평가는 개인들 사이에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내부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현상학적으로 다양하다. 잠재적 수준에서 기본적 동기는 표면적 수준에서 매우 다양한 가치평가를 생성할 수 있으며 또 그것들의 체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Hermans와 Hermans-Jansen 및 van Gilst(1985)는 인간 경험의 기본적 이원성에 관한 연구자들의 개념형성을 검토하여 가치평가 시스템의 정의적 구성요소를 특징짓는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를 확인하였다. 하나는 자기도모(곧, 자기유지 및 자기확장)를 위한 투쟁 혹은 S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접속(곧, 다른 사람 및 주변 세계와의 접촉 및 결속)에 대한 열망 혹은 O 동기이다. 이들 동기는 서로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 지향성으로 작용한다. 개인이 어떤 일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그것에 관해 어떤 느낌을 가지며 또한 이러한 감정에는 기본적인 동기가 반영되게 마련이다. 예컨대, 어떤 가치평가(가령, “나는 힘든 훈련의 덕택에 게임을 승리할 수 있었다”)가 S 동기의 만족을 나타낼 때, 그는 가치평가와 결합해서 강인함과 자긍심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치평가(가령, “나는 내 아들이 피아노를 치는 것을 보면 즐겁다”)는 O 동기의 만족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가치평가와 결합해서 경험되는 다정함과 친밀감은 이 동기의 지표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 수준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기본적 동기는 표면적 수준에서 가치평가의 정의적 구성요소로서 표출된다. 잠재-표면의 구분은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동기는 개개인의 인생에서 한가지 면이나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가정되는 기본 목표로 해석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가치평가의 구성 절차

Hermans와 Hermans-Jansen(1995)은 가치평가이론으로부터 연역된 하나의 체계적인 가치평가 과정으로서 자기의 구성 및 재구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기직면법(self-confrontation method)을 개발하였다. 그것은 개별적-구체적 사례연구의 도구(idiographic instrument)로서, 체계적인 자기탐색을 통해서 가치평가와 감정의 관계, 곧 양자의 변인이 하나의 구조화된 전체로서 조직되는 방식과 이렇게 조직된 전체가 시

간에 따라서 변해 가는 방식을 탐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것은 개인의 역사적 삶에 집중해서 그의 과거, 현재 및 미래 세계에 대한 견해를 자신의 용어로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가치평가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제화에 대한 내담자와 상담자의 통찰을 증대시키고 또 그것의 지속적인 발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가치평가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는 자기직면법의 중심적인 부분인 자기탐색이다. 그것은 개인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서 가치평가를 공식화하는 일, 가치평가에 연결된 감정을 탐색하여 동기를 분석하는 일,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결과를 논의하는 일의 세 하위국면을 포함한다. 이 자기탐색 과정은 대개 몇 주 혹은 몇 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이상 반복 실시하여 가치평가 시스템의 구성 및 재구성을 통한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자기탐색의 하위국면을 검토한다.

1. 가치평가의 공식화

자기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와 상담자는 먼저 예비 면담을 통해서 서로의 기대를 논의하여 상담에 임하는 양자의 태도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전념, 협력 및 책임성 공유와 같이 생산적인 자기탐색의 분위기를 수립하기 위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합심해서 가꾸어야 할 태도를 분명히 한다. 그 다음 상담자는 지시문을 이용하여 자기탐색 국면의 기능과 진행 절차를 이해시킨다. 내담자는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탐색의 각 부분을 완성해야 하며 또한 이 국면이 자기평가의 구성뿐만 아니라 자기반성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 때 단 한번의 자기탐색 결과가 결코 하나의 고정된 그림을 산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자기탐색의 첫 하위국면에서는 내담자가 일련의 개방적인 질문에 반응해서 몇 개의 가치평가를 공식화한다. 질문의 내용은 자기직면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있으나, 주된 질문은 과거, 현재 및 미래에 관련해서 유의미한 일이나 사람 혹은 주변 상황을 탐색하도록 안내하는 것들이다. 자기탐색을 위한 일련의 표준 질문 세트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질문은 자기탐색의 구체적인 목표에 알맞게 수정 또는 확장될 수 있다. 가급적 질문의 범위를 폭넓게 유지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내력 중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자기 식으로 공식화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표 1〉 자기탐색에 사용되는 표준 질문 세트

Set 1: 과거

이 질문은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과거 삶의 모습을 한가지 이상 검토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 가기 바랍니다.

- 당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이나 사건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당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나 사건이 있습니까?
- 당신의 과거 생활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현재 생활에서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경험 사실이 있습니까?

Set 2: 현재

이 질문은 당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또한 당신이 심사숙고한 후에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반응을 공식화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 당신이 현재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나 사건 가운데 당신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나 사건 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의미 있는 주변 상황이 있습니까?
- 당신의 현재 생활 속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당신의 삶에 분명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경험 사실이 있습니까?

Set 3: 미래

이 질문은 당신의 미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당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어떤 반응을 공식화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원하는 만큼 멀리 당신의 미래를 내다보기 바랍니다.

- 당신은 미래의 생활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거나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만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까?
- 당신의 미래 생활 속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어떤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 당신의 인생에서 장차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어떤 목표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가치평가에 대한 전형적인 문법적 표현은 문장이다. 이는 어떤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구문론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개인이 그것을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절 혹은 단어로써 표현할 수도 있다. 다만 각각의 문장은 내담자가 명백히 자기의 이해에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여기는 의미의 단위로 알기 쉽게 진술되어야 한다. 〈표 1〉에서처럼 각각의 질문 세트는 어느 정도 같은 방향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같은 질문 세트 안

에서, 내담자는 그에게 가장 유인가가 높은 질문에 정신을 집중한다. 질문은 1개 이상의 가치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질문은 자극-반응에 기초해서 고안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빠른 대답을 이끌어낼 필요가 없으며, 다만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유능한 면접자의 조력을 받아서 그의 생활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도록 초대할 뿐이다.

2. 감정의 탐색 및 분석

자기탐색의 두 번째 단계는 가치평가의 정의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가치평가와 감정 용어의 표준 목록을 연결하는 일이다. 감정은 가치평가의 내재적 측면이다. 따라서 가치평가를 이해하려면 그것의 정의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정의적 특성은 기본적 동기의 작용을 반영한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일련의 감정 용어를 포함하는 표준 목록을 제시한다. 하나의 간단한 예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 목록에 포함되는 감정 용어는 경우에 따라서 더욱 확장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될 수도 있다. 그것은 기본적 동기에 대한 심리학자의 지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표 2> 자기탐색에서 사용되는 감정 용어의 표준 세트

1. 기쁨(P)	5. 강인함(S)	9. 불행(N)	13. 의기소침(N)
2. 자존감(S)	6. 즐거움(P)	10. 다정함(O)	14. 자긍심(S)
3. 행복(P)	7. 보살핌(O)	11. 자신감(S)	15. 실망(N)
4. 근심걱정(N)	8. 사랑(O)	12. 친밀감(O)	16. 내적 평온(P)

주: S,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을 반영함; O, 타자접속에 대한 열망을 반영함; P, 긍정적 감정을 나타냄; N, 부정적 감정을 나타냄.

<표 2>에 제시된 목록은 가치평가 시스템의 동기유발 측면에 관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소한의 감정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을 언급하는 것(S), 타자접속에 대한 열망을 언급하는 것(O), 긍정적(유쾌한) 경험을 언급하는 것(P), 그리고 부정적(불쾌한) 경험을 언급하는 것(N)의 네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자존감, 강인함, 자신감 및 자긍심은 자기도모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보살핌, 사랑, 다정함 및 친밀감은 타자접속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쁨, 행복, 즐거움 및 내적 평온은 기본적 동기에 대한 만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유쾌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근심걱정, 불행, 의기소침 및 실망은 기본적 동기가 만족되지 않을 때 기대되는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가치평가의 정의적 구성요소를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동기유발 수준에서 가치평가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내담자는 혼자서 자신이 개발한 가치평가를 계속해서 이 표준 목록의 감정 용어와 연결짓는 작업을 행한다. 먼저 첫 번째 가치평가에 집중하여 그가 이것과 관련해서 각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판정하여 6단계 평정 척도로 나타낸다(0, 전혀 아니다; 1, 약간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꽤 그렇다; 4, 많이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다음에는 두 번째 가치평가에 집중하여 같은 목록을 사용해서 그것의 정의적 특성을 평정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가치평가가 연속적으로 표준 목록에 포함된 감정 용어에 대해서 평정되며 또한 각각의 가치평가는 하나의 특수한 감정 프로파일을 갖게 된다. 그 결과는 가로 열에 가치평가를 나타내고 세로 행에 감정을 나타내는 2차원의 행렬이 구성된다. 각각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평정된 점수가 이러한 행렬을 채운다. 이 행렬을 가지고서 몇 가지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1) 지수 S 와 지수 O : 이는 자기도모(2번, 5번, 11번 및 14번)와 타자접속(7번, 8번, 10번 및 12번)을 나타내는 4개의 감정 용어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것이다. 각각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S-O$ 의 차이 값이 결정될 수 있다. 자기도모의 경험이 타자접속의 경험보다 강할 때에는 $S > O$ 이고, 반대일 경우에는 $O > S$ 이다. 두 경험이 같은 정도로 존재할 때에는 $S = O$ 이다.

2) 지수 P 와 지수 N : 이는 각각 4개의 긍정적 감정(1번, 3번, 6번 및 16번)과 4개의 부정적 감정(4번, 9번, 13번 및 15번)을 나타내는 용어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것이다. 각각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P-N$ 의 차이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값은 특정한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을 나타낸다. 행복은 $P > N$ 일 때에는 긍정적이고, $N > P$ 일 때에는 부정적이며, 또 $P = N$ 일 때에는 양가적이다. (각 지수 S , O , P 및 N 의 점수 범위는 0에서 20까지이다.)

3. 결과에 대한 논의 및 반성

자기탐색의 두 단계가 끝나고 나면(가치평가를 개발하고 행렬을 산출하는 데에는 대략 2~3시간 정도가 소요됨), 내담자에게는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반성의 기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상담자는 가치평가×감정 행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대개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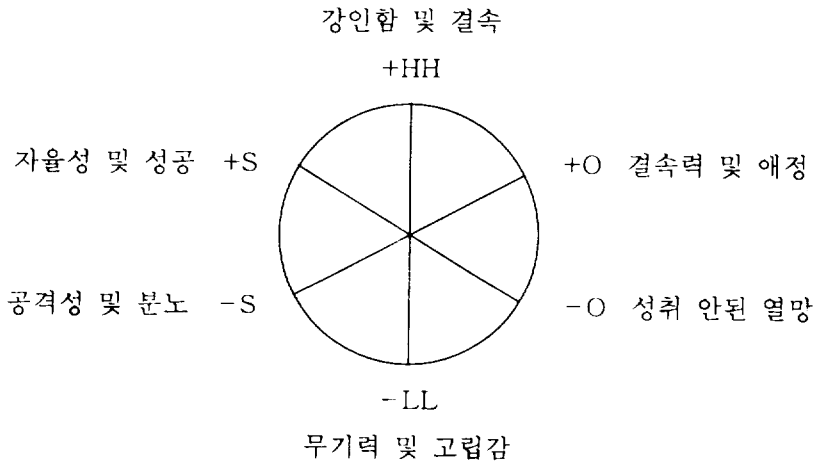
상담자와 내담자의 논의는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언급하는 가치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반적인 그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내담자는 어떤 사실을 망각했거나 약간의 자기반성 후에 어떤 가치평가의 구성에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당신은 자기탐색의 결과로서 요즈음에 무엇을 생각했고 행하였거나 느껴왔습니까?”라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논의를 시작한다.

논의는 내담자에게는 강도 높은 자기반성이며 또한 상담자와 뜻깊은 담화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내담자에게 가치평가 시스템의 기초원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인한다. 논의에서 상담자는 개별적인 감정, 감정 지수와 그 조합, 그리고 다른 가치평가의 정념 패턴과의 비교에 의해 도출된 정보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심화시키면서 기본적 동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서 내담자는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새로운 주도권을 행사하며 또한 일상 생활에서 방향 감각을 발달시키게 된다. 더욱이 표면 수준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치평가들이 잠재 수준에서는 분명히 유사성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가치평가들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시사할 것이다.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한가지 이상의 안내 주제를 찾아내는 일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주요 활동이다. 논의의 막바지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가 구성한 스토리의 주제에 잠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대한다. 논의는 단 한번의 회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계속되는 회기에서 일상의 경험을 가치평가 시스템의 내용 및 구성과 비교함으로써 시스템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가 있다.

IV. 가치평가의 구조 분석

현상 수준에서 가치평가의 풍부한 변이는 잠재 수준에서 제한된 수의 기본적인 동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본적인 동기는 자기탐색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가치평가의 정의적 구성요소로 표현된다. 따라서 가치평가에 대한 정의적 패턴 분석을 통해서 그것의 구조 및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개인적인 스토리의 중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Hermans와 Hermans-Jensen(1995)은 가치평가를 자기도모(S) 대 타자접속(O) 그리고 긍정적 감정(P) 대 부정적 감정(N)

을 나타내는 정념에 연합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여섯 가지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1> 가치평가의 여섯 가지 유형(Hermans & Hermans-Jansen, 1995)

이들 각각의 유형은 개인이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사적 스토리의 중심적인 주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적 중재의 과정에서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이들 가치평가의 유형을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치평가의 본질을 고찰한다.

1. 긍정적인 자기도모(+S) : 자율과 성공 지향

일부 개인은 환경에 대해서 고도로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처양식을 반영하는 가치평가의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는 타자접속에 대한 열망에 관련된 정념보다는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에 관련된 정념과 좀더 강하게 연합되며,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언급하는 정념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언급하는 정념과 좀더 강하게 연합된다. +S라는 표현 방식은 긍정적인 자기도모를 암시하는 가치평가가 O 동기보다는 S 동기의 정념에 좀더 강하게 연합되고($S > O$), 또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의 정념에 좀더 강하게 연합되고($P > N$) 있음을 나타낸다. <표 3>은 긍정적인 자기도모에 연합된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긍정적인 자기도모(+S)에 연합된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사건을 일으키거나 수습하는 일을 즐겨 한다.	20	1	17	1
2. 나는 초등학교 시절 영어연극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였다.	17	4	15	4
3. 나는 좀더 나은 위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야간강좌에 등록했다.	17	4	12	4
4. 나는 그토록 원했던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나는 한 때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꿈을 방해받고 싶지가 않았다.	14	4	13	5
5. 나는 부모로부터 방학생황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동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다.	13	1	17	5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S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긍정적인 자기도모에 연합된 가치평가의 표면적인 진술은 때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기술되기도 하고(〈표 1〉의 1-3), 때로는 자기도모에 대해서 좀더 난해하고 불투명한 통로를 드러내기도 한다(〈표 3〉의 4-5).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자기도모의 가치평가를 지닌 개인은 자신을 자기도모의 자율적인 원천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이 주변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선호하는 성과를 산출해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아존중을 만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자기도모의 동기는 원래 자기유지 및 자기확장에 대한 요구로서 정의되었으며, 자기탐색에서 +S 유형의 가치평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주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저항을 일련의 도전으로 바라보는 자기확장, 곧 특수한 계획이나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일종의 자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도모의 현상을 단순히 자신의 고유한 노력과 주도적 활동의 긍정적인 성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일은 성급한 결론이 될 수도 있다. Rosenberg(1979)에 따르면,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기도모의 현상은 이러한 반성의 원리를 신중히 고려할 때에만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에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마련이다. 〈표 4〉는 자기도모를 반영하는 가치평가들이 내면화의 정도에 따라서 긍정

적-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정념들과 다양하게 연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긍정적인 자기도모의 내면화 정도에 따른 가치평가의 다양성

가치평가	S	O	P	N
1. 내가 맡은 일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전적이다. 나에게서는 어느 정도 강력한 찬사가 필요하다.	14	5	15	4
2. 나는 웅변대회에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 내가 항상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16	0	4	17
3. 내가 실패했을 때 나의 행동과 야망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17	8	13	10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는 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	13	8	11	10
5. 내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반드시 성취해야만 한다.	5	6	5	11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종종 자기도모를 반영하는 가치평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표 4〉의 1).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강한 의존성은 자기도모를 반영하는 가치평가가 때로는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념들과 연합을 형성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표 4〉의 2). 이 경우에는 한 순간 자신감에 연합되었던 가치평가가 곧바로 불안 감정과 강하게 연합된다. 부분적으로 이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성취에 대한 현재의 인정이 미래에 대해서 보다 큰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몰입하고 있는 한,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도모와 연합된 가치평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치평가의 진술내용이나 전체 가치평가 시스템을 함께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가치평가가 같은 정도의 자기도모를 반영하는 동일한 정념 패턴을 나타낼지라도 그것과 연합된 자율성의 정도에서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가치평가의 이러한 성질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개 가치평가의 진술내용이다. 개인은 때로 색다른 실패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사회의 가치체계와 항상 부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를 계기로 다른 사람의 칭찬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을 미루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표 4〉의 3).

이와 같이 자기도모에 연합된 경험들이 내면화되는 정도는 서로 다르며, 내면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내면의 강인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개인이 당면하게 되는 상황의 지지에 비교적 덜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내면화의 정도가 낮은 개인은 자신의 성과에 대한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매우 의존적인 성향을 지닌다. 이러한 개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 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며, 어떤 형식 이든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면 그의 자아존중에 위협을 느낀다. 만일 개인의 가치평가들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나 자기 자신의 외향적인 반성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면(〈표 4〉의 4-5), 가치평가 시스템을 좀더 높게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표 5〉는 자기도모에 연합된 가치평가가 외적 통제로부터 내적인 자율로 분명히 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 긍정적인 자기도모에 연합된 가치평가의 내면화된 변화

가치평가	S	O	P	N
1. 나에게 갑자기 일이 주어졌고 나는 즉각 그것을 수락해야만 했다. 이제 나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방해하는 일이 없다면, 나는 그 일을 끝낼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겠다.	17	9	8	4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이 가치평가에서 개인은 비록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일을 떠맡게 되었지만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그 일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자기도모를 위해 노력하는 일과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하는 일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평가가 좀더 내면화될수록 그것은 자기의 유지 및 확장과 관련해서 좀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외현적인 자기도모를 위해 투쟁하는 개인은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고정된 의존성을 나타내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확인을 요구하는 반면에, 내면화된 자기도모를 위해 노력하는 개인은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좀더 자율적이고 광범위한 확장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S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치료적 중재의 과정에서 변화의 초점을 명료화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개인이 일상 생활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가치평가를 정당화/무효화하는 상담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S 유형의 가치

평가들이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에 좀더 많이 포함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2. 방어적인 자기도모(-S) : 분노와 대립 지향

-S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타자접속의 동기보다는 자기도모의 동기와 연관된 정념들과 좀더 높게 연합되며($S > O$),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정념들과 좀더 높은 연합을 형성한다($P < N$).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심리적 불안 상태를 나타내며, 좀더 일반적으로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일과 같이 자기도모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은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존중을 위협하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반대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려고 애쓰는 모종의 대립 현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자아존중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들에서 자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S 유형의 가치평가를 지닌 개인은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환경의 저항을 방해물로 지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방해물에 굴복하거나 욕구좌절로 인해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을 단념하기보다는 자기방어적 노력을 통해서 투쟁을 계속하며 심지어는 좀더 강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S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전형적으로 자기도모를 성취하려는 투쟁의 과정에서 심각한 방해물이 가로놓인 상황들에서 자기유지나 자기확장에 대한 개인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은 부정적인 감정과 강하게 연합되는 방어적인 자기도모를 나타내는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방어적인 자기도모(-S)에 연합된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려고 사람들이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15	0	3	16
2. 나는 부모가 나에게 관한 일에 참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10	0	2	12
3. 나는 내가 상황을 눈치챌 것으로 기대하는 다른 사람의 힘이 우세하다고 느낄 때에는 무시무시한 공격성과 무력감을 경험한다.	17	0	3	16
4. 나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곧잘 당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탈았다.	13	3	4	12
5. 동아리 친구들은 내가 개인적인 활동만큼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나를 비난한다.	12	1	3	12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높은 수준의 S 동기는 대개 긍정적인 감정과 결합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S 동기가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과 공존하는 가치평가를 지닌 개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자아존중이나 강인함과 같은 S 동기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지나친 참견이나 만행에 대해서 노발대발하거나 격분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쉽게 발견된다(〈표 6〉의 1-2). 이는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적들이라고 느끼게 될 때 그들에 맞서서 대항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S 유형의 가치평가들에서는 분노와 공격성의 경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험은 위협받고 있는 자기도모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때로 커다란 강점을 자각하고 두 주먹을 움켜쥐지만, 동시에 분노나 실망을 느끼며 심지어는 무기력과 같은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표 6〉의 3-5). 이러한 상황에서는 높은 수준의 S 동기와 부정적인 감정이 어우러져서 -S 유형의 정념 패턴과 연합된 특수한 가치평가를 형성하게 된다.

때로 방어적인 자기도모의 가치평가들에서는 증오심과 같은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이 표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증오심은 현상학적으로 어떤 이에게 강하게 적대적이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치고 싶은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나 공격적인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왜곡된 접촉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은 분노나 공격성과는 달리, 증오심은 어떤 개인이 이러한 격정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철저히 부정하거나 심지어는 없애고 싶은 충동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정서를 반영한다. 곧 증오심은 관계의 단절 또는 대화의 종말을 암시한다. 따라서 증오심은 대다수의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동기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파멸에 이르기를 바라는 일이 어느 정도는 자아존중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가치평가에서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표 7〉은 증오 감정과 연합된 자기도모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다.

〈표 7〉 증오 감정과 연합된 자기도모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16세 때 불안, 적대감, 증오심을 느꼈다. 나는 오직 부모의 일부 분으로만 인정되었을 뿐이었다. 지금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3	3	2	11
2. 나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의 여자 친구와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증오심을 느꼈다.)	8	1	2	18
	(18)	(1)	(3)	(12)
3. 나와 절친한 친구가 내가 결코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고 나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는 나에게 증오심을 느끼고 있다.)	4	3	2	14
	(14)	(0)	(0)	(8)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 속은 증오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시된 단서에 반응해서 수정된 내용을 나타냄.

증오심은 자신의 존재가 부모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범당했다고 자각할 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표 7〉의 1). 증오의 경험이 일반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감히 그의 가치평가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표 7〉의 2).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느낀다는 것과 이것이 문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은 자아-초자아 갈등의 전형적인 예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증오심에 연합된 가치평가를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은 증오심을 느끼게 하는 경험을 분명하게 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는 완화시키거나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때때로 가치평가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S 동기와 연합된다(〈표 7〉의 3). 〈표 7〉에 제시된 가치평가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증오심을 느낀 경험을 좀더 명시적으로 평정하도록 하거나 자신에게 증오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사람을 상상하게 할 경우에는 -S 유형의 가치평가가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비록 증오심이 좀더 극단적인 경험이라는 하지만 방어적인 형태의 자기도모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정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S 유형의 가치평가들이 가치평가 시스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개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S 유형의 가치평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개인의 일반적인 감정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나타난다. 만일 이러한 가치평가 시스템이 위협적인 힘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서 나타난다면, 위협적인 상황이 완화될

경우 다른 유형의 가치평가들이 -S 유형의 가치평가를 대치하게 될 것이다. 좀더 심각한 상황은 -S 유형의 가치평가들이 경직된 채 가치평가 시스템의 항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는 경우인데, 이는 위협의 원천이 사라질 때조차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 시스템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립적인 상황이 자기도모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추구하거나 심지어는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가치평가 시스템에 -S 유형의 가치평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도모를 위한 다른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자아정체성의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이고 비효율적인 투쟁을 일삼는 성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상담 장면에서 이와 같이 -S 유형의 가치평가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가치평가 시스템이 개인의 자기유지를 위한 방어적인 투쟁을 합축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들을 정당화/무효화하는 상담 전략을 통해서 좀더 긍정적인 자기도모에 연합된 가치평가들로 대치하도록 조력함으로써 가치평가 시스템의 재구성을 촉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에게 자기탐색 과정에서 분노나 공격성 또는 심지어 증오심을 느낀 경험들을 가치평가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험을 좀더 명시적으로 평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아-초자아 갈등을 자각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다면 방어적인 자기도모의 투쟁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표 8>은 자아정체성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던 개인이 심리적인 조력을 통해서 -S 유형의 가치평가(1a)를 +S형의 가치평가(1b)로 대치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방어적인 자기도모에 연합된 가치평가의 긍정적인 변화

가치평가	S	O	P	N
1a.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의견을 말했지만, 그는 버릇이 없다고 나를 크게 꾸짖었다.	13	1	0	16
1b. 나는 이해를 구하거나 논의할 일이 생길 때, 나의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16	2	13	0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이처럼 방어적인 자기도모에 연합된 가치평가의 긍정적인 변화는 개인이 오직 대립적인 관계에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자아존중을 좀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오직 개인이 자기도모를 위한 대안적 통로를 자각할 경우에만 기대될 수 있다. 개인이 긍정적인 방식에 의해서 자아존중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오히려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희생시키면서 공격적이거나 대립적 관계에 집착할 수도 있다.

3. 수용적인 타자접속(+O) : 애정과 결속 지향

+O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자기도모의 동기보다도 타자접속의 동기, 곧 타인과의 접촉 및 결속에 대한 욕구를 언급하는 정념들과 좀더 강하게 연합되며($S < O$), 또 부정적 감정보다는 긍정적 감정을 언급하는 정념들과 좀더 강하게 연합된다($P > N$). 언뜻 보면, 자아존중의 정도가 낮은 가치평가들이 긍정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긍정적 감정은 자기도모의 동기를 충족하는 정도와 완전한 의존적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또한 타자접속의 동기를 실현함으로써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특히 자기도모의 감소가 다른 어떤 것(인간, 집단, 동물, 대상 또는 일반적인 주변 세계)과의 접촉이나 결속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때 기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S 동기의 성취가 줄어드는 일보다는 O 동기의 성취가 좀더 향상된 결과로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표 9>는 타자접속의 동기 지향하는 긍정적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 9> 수용적인 타자접속(+O)에 연합된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노래부르던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8	16	20	4
2. 나는 산과 강을 찾아다니면서 숲 속의 고요함과 마른 풀 내음을 음미하거나 새들의 노래 소리와 시냇물 소리를 감상하곤 한다.	7	17	15	1
3. 나는 성서나 명상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나의 삶을 인도하려고 노력해 왔다.	4	13	18	2
4. 나는 돌아가신 부모에게서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안을 받았을 때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5	20	14	3
5. 내가 심심할 때에는 곁에서 항상 나를 재미있게 해주는 귀여운 동생이 있어서 좋다.	4	12	12	7
6. 나는 내 아이들에게 좀더 많은 온정을 베풀고 좀더 아늑한 복음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	9	18	14	5
7. 나의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나에게도 새로운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이 좋았다.	4	11	13	6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O 유형의 가치평가에서는 자주 개인의 미학적이고 신비스런 체험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이는 종종 자연 환경이나 종교적 신념과의 격정적인 마주침을 포함한다(〈표 9〉의 1-3). 이와 같이 신비의 세계를 향한 여행이나 종교적 체험은 타인과의 결합 및 접촉에 대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성취하는 일에 관계된다. 또한 유의미한 타인으로부터 위로나 위안을 받게 되는 부드러운 접촉은 타자접속의 동기를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표 9〉의 4-5). 더욱이 이와 같은 경험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성취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고통이나 슬픔으로부터 구원을 줄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O 유형의 가치평가는 전형적으로 타인들에 대해서 좀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반영하기도 한다(〈표 9〉의 6-7). 타인과 강렬한 접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방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타인의 가치에 민감한 사람이 타인의 행복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면, 그의 수용적인 태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나서 타인을 보살피거나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타인에게서 수용되고 있으며 또한 타인을 수용하고 있다는 경험은 +O 유형의 가치평가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는 Rogers(1951)가 제안한 수용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한편, 개인은 베푸는 일과 받아들이는 일간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타자접속의 동기, 곧 타인과의 접촉 및 결속에 대한 욕구를 부분적으로 성취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성적 경험에 대한 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10〉은 성적 경험과 관련해서 수용적인 태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 10〉 성적 경험과 관련된 수용적 태도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는 가치평가의 예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내 아내가 신체적으로 접촉할 필요를 느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	4	13	12	6
2. 나는 잠자리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로 이성 친구의 뜻에 내맡겼을 때 오르가즘을 느꼈다.	0	15	19	1
3. 나는 성적 접촉에서 남자 친구가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의 완전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다.	14	8	20	1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성적 경험은 종종 +O 유형의 가치평가를 만들어내며(〈표

10)의 1-2), 이는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으로서 즐기는 성적 접촉(<표 10>의 3)과는 아주 다른 동기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성적 경험은 한가지 유형의 가치평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일상적인 경험들에서 드러나는 가치평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가치평가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가치평가의 다양성은 개인들 사이에서는 물론 동일한 개인의 내부에서 함께 발생할 수도 있다.

+O 유형의 가치평가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경험들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는 기본적으로 타자접속의 동기로부터 파생되는 행복의 한 형태로서 개인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수행에 매달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가치평가는 흔히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주변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자기도모에 연합된 가치평가를 공식화한 내담자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용적인 태도를 채택하도록 독려함으로써 +O 유형의 가치평가를 창조하도록 조력하는 일은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극도로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일 중독증 환자나 불치의 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와 같이, 때때로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도모를 위한 과도한 투쟁과 연합된 가치평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들의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실패했을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러한 일을 성취했을 때조차 신경증적 행동을 초래하는 경험들로 채워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이완훈련과 같이 긴장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에 참가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더 수용하는 자세를 갖도록 학습함으로써 +O 유형의 가치평가를 창조할 수 있다. <표 11>는 자기유지 및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일삼는 한 개인의 갈등적인 가치평가(1-3)와 긴장 완화와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재구성된 가치평가(4-5)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11〉 자기도모를 위한 과도한 투쟁과 연합된 갈등적 가치평가의 재구성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성질이 급하고 침착하지를 못하며 모든 일이 재빨리 성취되기 를 갈망한다.	14	4	11	8
2. 나는 전문 경영자로서 성공적인 인물이 되고자 열심히 일해 왔으며, 그 결과 나의 직업세계에서 탁월한 업적을 성취하였다.	16	3	15	5
3. 나는 이따금씩 자녀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 으며,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8	10	2	7
4. 나는 가끔씩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3	8	10	5
5. 나는 자녀의 신체적 장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해서 그 아 이를 좀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다.	8	14	12	8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이와 같이 수용적인 태도를 채택하는 일은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경험을 가져오며, 개인은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내부 세계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출현함으로써 확장된 자아존중을 경험한다. 이는 자아존중이나 강인함과 연합된 정념이 반드시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개인 상호간에 수용하는 풍토 속에서 타인과의 결속을 시도하는 일의 간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어떻게 해서 타인에 대한 희생이 곧 자신을 위한 성취가 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4. 배타적인 타자접속(-O) : 충족되지 못한 열망 지향

-O 유형의 가치평가에서는 자기도모의 동기보다는 타자접속의 동기에 연합된 정념들이 좀더 강하게 나타나며($O > S$), 동시에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에 연합된 정념들이 좀더 지배적이다($P < N$). 이러한 정념 패턴은 대개 붙잡을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실제로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나 대상을 열망하는 이윤배반적인 애정 지향성을 반영한다. -O 유형의 가치평가를 창조하는 경험의 전형적인 징후는 파멸로 치닫는 정사 사건이다. 프랑스 조각가인 Rodin은 Dante의 소설 『신곡』에서 등장하는 슬픈 애정스토리(형수와 사랑에 빠졌다가 발각되어 처형된 파올로와 프렌치스카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하나의 소상을 조각하였다. 이 소상은 연인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아주 근접해 있으면서도 서로를 붙잡을 수 없는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Hermans와 Hermans-Jensen(1995)은 피험자들에게 이 소상의 그림사진을 보여주고 가치평가를 구성하도록 하여 그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표 12〉는 피험자들이 구성한 가치평가의 몇 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Rodin의 소상은 어떤 개인에게는 사별한 여자 친구와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을 연상하게 하였으며(〈표 12〉의 1), 다른 이에게는 유의미한 타인의 예견된 죽음에 연관된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게 하였다(〈표 12〉의 2). 또 다른 개인은 이러한 소상의 사진그룹에 반응해서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 죽은 사람의 역할을 가정하고 있었다(〈표 12〉의 3). 이들이 드러낸 가치평가와 연합된 정념 패턴은 모두 배타적인 타인접촉의 미완성된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O 유형의 가치평가는 개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연합된 정념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표 12〉 Rodin의 소상 그림에 반응해서 구성된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

가치평가	S	O	P	N
1. 여자 친구의 죽음은 나를 너무도 슬프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매우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녀와의 감정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6	16	2	13
2. 나는 할머니께서 운명을 달리하실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5	14	1	11
3.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른 식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생일에는 연어요리를 먹고, 또 어머니나 동생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함으로써 아버지나 다른 가족들과 느꼈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으면만...	3	11	4	16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이러한 경험의 구조에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향한 애정 지향성으로서, 이는 가치평가가 S 동기보다 O 동기와 좀더 강하게 연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대상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나 경계로서, 이는 가치평가가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과 좀더 강하게 연합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처럼 모순된 구조를 경험하는 개인들의 가치평가는 개인의 내력이나 생활 여건에 따라서 금지된 정사, 소중한 친구의 죽음, 예견된 작별, 이민자의 모국 사랑, 젊은이의 열정, 그리고 타인에게 다가설 수 없는 친밀한 감정 등 여러 가지 조짐을 드러낼 수 있다.

〈표 13〉 배타적인 타자접속(-O)과 연합된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초등학교 시절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놀이기구에서 떨어 져서 심하게 다친 경험이 있다.	8	17	7	14
2. 나는 최근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수술을 받았으나 돌아가 시고 말았다.	6	13	4	17
3. 나는 중학교 졸업식 날 가장 친한 친구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다.	4	17	1	14
4. 나는 남편과 이혼한 결과 자녀들이 누렸어야 할 몇 가지 권리를 빼 앗고 말았다. 나는 그들에게 한없는 죄의식을 느낀다.	1	16	5	17
5a. 나는 수년 동안 지속된 가정 내 문제들로 인해서 갑자기 나를 지탱 해왔던 지구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4	13	0	15
5b. 나는 병약한 딸에 매달리다가 아들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	6	16	5	11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표 13〉은 자기탐색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타적 타자접속과 연합된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이다. -O 유형의 가치평가는 유의미한 타인들 앞에서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나 부모나 친한 친구와 같이 유의미한 타인과 갑작스럽게 이별한 경험으로부터 쉽게 도출된다(〈표 13〉의 1-3).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는 죄의식의 감정과 빈번하게 연합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떤 개인이 특히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중요한 책임감을 느낄 때에는 이러한 감정이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표 13〉의 4). -O 유형의 가치평가는 때로 그것의 진술내용과 연합된 정념 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불일치를 드러내며, 이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묵시적으로 추론해낼 수가 있다. 〈표 13〉에 제시된 가치평가 5a의 진술내용은 S 동기와 관련해서 낮은 정념 수준[4]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O 동기와 관련해서는 높은 정념 수준[13]과 연합되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가치평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가치평가 5b의 진술내용은 아들을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가치평가의 높은 상관관계는 가치평가 5a의 진술내용이 묵시적인 죄의식에서 비롯된 우울 감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치평가의 진술내용과 연합된 정념 수준간의 불일치는 상담 장면에서 가치평가의 재구성을 위한 변화의 초점을 공식화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서 묵시적인 배타적 타인접촉의 조짐을 감지할 때에는 문제를 외현화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의 진술내용과 연합된 정념 간의 불일치를 확인하여 자각시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치평가를 재구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내담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내담자가 불일치를 자각하게 되면 유사한 상황에서 내담자가 취하게 될 행동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O 유형의 가치평가들이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그의 삶에 보편적인 영향을 지니게 되면, 그 개인은 전반적인 행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만일 이러한 개인의 가치평가가 좀더 +O 유형의 가치평가로 변화할 수 있다면, 그는 좀더 긍정적인 행복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표 14>는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청소년기의 한 소녀가 초기 자기탐색에서 구성한 -O 유형의 가치평가(1)와 이로부터 치료적 경험을 통해서 재구성한 좀더 긍정적인 가치평가(2와 3)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14> 어머니와의 갈등적 관계를 극복한 한 소녀에게서 나타난 가치평가의 변화

가치평가	S	O	P	N
1. 어머니가 나에게 화내고 잔소리할 때, 나는 마음의 문을 닫고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기로 결심하곤 하였다.	5	12	0	15
2. 나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런 여성이다. 나는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마음쓰지 않는다.	9	16	16	5
3. 나는 결코 나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야만 나는 어머니의 인생과 나 자신의 인생을 따로 분리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	17	16	17	1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5. 무기력한 삶(-LL) : 기본 불안과 고립감

-LL 유형의 가치평가는 대개 부정적 감정과 연합된 정념으로 채워져 있으며, 또한 S 동기와 O 동기의 양자 모두와 관련해서 낮은 정념 수준과 연합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는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과 타자접속을 위한 노력의 두 가지 동기를 모두 성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개인은 전형적으로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가치평가는 개인의 무력감과 고립감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개인의 기본적인 불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5>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 15〉 무력한 삶(-LL)을 나타내는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어렸을 때 길을 잃고 헤매던 경험이 있다. 그 이후로 나는 혼자 있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끼곤 하였다.	0	0	0	15
2. 나는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얻고 슬펐다. 그 이후로 나는 중요한 시험이 닥쳐올 때면 불안을 느끼곤 하였다.	2	1	0	19
3.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변 사람들의 신체적인 학대와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다.	3	0	0	18
4. 나는 어떤 남자에게 지난 6개월 동안 강제적인 성폭행에 시달려 왔으며, 이 때문에 나는 심한 굴욕감과 서글픔을 느껴야만 했다.	0	0	0	18
5. 나는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으며, 결국 우리는 헤어지고 말았다.	1	0	0	20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전형적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불안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다. 불안의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anxiety는 Latin어의 angusta에서 유래하는데, 이 말은 '둘러싸인 상태'를 의미한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인간은 아무런 출구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은 흔히 길을 잃고 헤매거나 시험에 실패하고 낙심할 때처럼 자신이 홀로 되었다고 느낄 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표 15〉의 1-2). 또한 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생을 당했다고 느끼는 경험을 쉽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표 15〉의 3-4). 이러한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상황을 제어할 강인함이 사라져간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반면에,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된다. 때로는 절친한 인간관계에서조차 사소한 말다툼 끝에 관계의 단절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이 홀로 버려졌다고 하는 기본 불안에 휩싸일 수도 있다(〈표 15〉의 5).

-LL 유형의 가치평가는 전형적으로 기본 불안을 비롯하여 높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과 연합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를 지닌 내담자는 전형적으로는 자신의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자기도모를 언급하는 정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내담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두 발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조기술에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를 구축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준의 자율과 강인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가능하다. <표 16>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갇혀 있다고 느끼던 개인의 가치평가(1a)를 치료 경험을 통해 변화된 가치평가(1b)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16> 무기력한 삶에 연합된 가치평가의 재구성

가치평가	S	O	P	N
1a. 나의 마음은 갇혀 있다. 나는 갇혀 속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으며, 남들은 결단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	0	1	15
1b. 나는 나 자신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될 때에는 그것을 좀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4	11	9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치료 전의 가치평가(1a)에서는 극단적인 -LL 유형의 정념 패턴을 보였으나, 치료 경험 후의 가치평가(1b)에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감정이 좀더 높은 수준의 정념과 연합되었으며 여전히 약하기는 하지만 +S 유형의 정념 패턴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LL 유형의 가치평가는 S 동기와 O 동기에서 모두 낮은 수준의 정념 패턴이 높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 및 낮은 수준의 긍정적 감정과 연합되는 전형적인 경우들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S 동기와 O 동기에서 모두 낮은 수준의 정념에 연합된 가치평가들이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과 좀더 강하게 연합되는 경우가 있다. 소위 +LL 유형의 가치평가는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이나 타자접속을 위한 열망에 대한 욕구의 결핍이 결여되는 긍정적으로 경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17>은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표 17> 긍정적인 감정에 연합된 낮은 자기도모 및 타자접속의 가치평가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현실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당신들을 짓이기는 삼류 풍자를 즐길 수 있다.	1	0	11	0
2. 나는 새롭게 진행되는 일의 전망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0	0	12	0
3.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2	0	13	2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LL 유형의 가치평가에 포함된 진술내용은 일관되게 피동적인 즐거움과 공허한 만족감을 반영하고 있다(〈표 17〉의 1-2).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들이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인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가치평가를 구성한 내담자는 종종 단순히 내면의 규범적인 압력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러한 압력으로부터 오는 긴장이나 부정적인 감정보다 자기 도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담자는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를 성취하라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적당히 편안함을 추구함으로써 동기를 성취하는데 따른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표 17〉의 3).

+LL 유형의 가치평가는 때로 개인의 신비스런 체험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다. 개인은 이러한 경험을 하는 순간에는 오로지 내적인 평온함만을 느낄 뿐이지만, 나중에 이러한 경험을 회고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정념 패턴을 보이게 된다. 〈표 18〉은 한 여성이 신비스런 체험을 하는 순간과 나중에 그 순간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가치평가에 대해서 반응한 정념 패턴의 변화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8〉 신비스런 체험의 순간과 회고적 탐색 과정에서 생성된 가치평가의 변화

가치평가	S	O	P	N
1a. 나는 갑작스럽게 모든 일을 깨닫게 되었다. 심지어는 영적인 오르가즘에 이르는 절정 경험인 창조의 비밀까지도 말이다.(체험의 순간)	0	0	5	0
1b. 나는 갑작스럽게 모든 일을 깨닫게 되었다. 심지어는 영적인 오르가즘에 이르는 절정 경험인 창조의 비밀까지도 말이다.(회고의 순간)	20	15	20	0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분명히 이와 같은 신비스런 체험은 개인의 삶에 매우 보상적이고 풍요로움을 맛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이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에는 기본적인 동기를 초월해서 무아지경의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표 18〉의 1a), 그러한 경험을 다시 회고하는 동안에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은 물론 타자접속을 위한 열망의 두 가지 동기를 모두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표 18〉의 1b).

6. 강인한 삶(+HH) : 자아 확립과 통합 지향

+HH 유형의 가치평가는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과 타자접속을 위한 열망의 두 가지

동기에서 모두 높은 정념 수준과 연합되면서 동시에 부정적 감정보다는 긍정적 감정에 좀더 강하게 연합된다.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는 자아가 확립되고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의 통합을 이룩한 성숙한 개인에게서 기대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은 한가지 동기의 성취가 곧 다른 동기의 성취를 수반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를 동시에 충족하게 되며, 이로 해서 높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는 또한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고 자율 및 자기도모의 동기와 타자접속의 동기가 적절히 통합된 개인에게서 흔히 발견되며, 그로 하여금 강인한 삶을 이끌도록 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게 된다. <표 19>는 자아 확립과 통합을 이룩한 개인의 강인한 삶을 반영하는 가치평가의 예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표 19> 강인한 삶(+HH)을 나타내는 가치평가의 몇 가지 예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여자 친구에게 꼭두각시 인형을 선물하였다. 나는 그녀를 위해 서라면 언제든지 어릿광대가 될 수 있다.	16	14	17	0
2. 나는 창작 활동을 통해서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타인들과 공유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과 짧지만 강한 우정을 맺는 기반이 되었다.	18	16	18	1
3. 나는 자신감을 잃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건전한 관계만을 선택하고 그렇지 못한 관계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15	17	18	2
4. 나는 내가 어떤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 해서 좀더 많은 여성들에게 어떤 분야에서든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느낀다.	17	16	17	4
5. 나는 아무런 부담도 없이 월드컵 길거리 응원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노래부르고 열광한 것이 너무 즐거웠다.	15	12	19	1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HH 유형의 가치평가들은 유의미한 타인과의 긍정적인 접촉 혹은 접촉의 순간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표 19>의 1-2).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는 또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인간관계나 사회참여를 갈망하는 개인의 확고한 결심을 반영하기도 한다(<표 19>의 3-5).

그러나 +HH 유형의 가치평가가 항상 두 가지 동기를 동시에 성취하는 통합된 형태의 경험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러한 유형의 정념 패턴과 연합된 가치평가들이 자기도모의 동기나 타자접속의 동기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나머지 동기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만 언급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이 경우에

는 한 개인에게서 발견되는 비슷한 정념 패턴과 연합된 가치평가의 진술내용이 두 가지 동기의 서로 다른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 <표 20>은 이러한 형태의 가치평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0> 상호작용하는 서로 다른 동기를 언급하는 가치평가의 예

가치평가	S	O	P	N
1. 나는 월드컵 축구 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3	13	18	3
2. 나는 월드컵 축구 대회를 통해서 일체감과 포근함을 느끼게 되었다.	13	14	19	4

주: S, 자기도모; O, 타자접속; P, 긍정적 감정; N, 부정적 감정.

가치평가(1)에서는 타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결속을 다지는 일체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가치평가(2)에서는 개인의 자아존중이 타인과의 접촉 및 결속을 통해서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각각의 가치평가는 묵시적인 가치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가치평가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덜 의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묵시적인 가치평가요소를 포함하는 +HH 유형의 정념 패턴은 친구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이 친밀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기술하는 가치평가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가령, 친구들과끼리 서로 가깝다고 느낄 때, 그들은 상호 지지와 존경을 함께 경험하며 그로 인해서 타인과의 일체감을 말할 것도 없고 긍정적인 자아존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평가는 전형적으로 +HH 유형의 정념 패턴과 연합되며 S 동기에 관련된 가치평가요소를 묵시적으로 포함한다.

+HH 유형의 가치평가는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과 타자접속을 위한 열망의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가 결합된 형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래서 대개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행복과 연합되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이 오직 한가지 유형의 가치평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의 삶은 매우 경직된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LL 유형의 가치평가들로 구성된 가치평가 시스템을 지닌 개인에게서 좀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으면, 그는 하나의 고정된 위치에 머물러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의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개인이 자신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어느 정도 감수성

을 지니고 있다면, 그의 가치평가 시스템은 결코 고정될 수가 없다. 이러한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어떤 가치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지위를 점유하게 되는가는 그가 처하게 되는 순간적인 상황에 의존해서 유연하게 이동한다. 예컨대, 개인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S 유형의 가치평가를 앞세워서 위협적인 힘들에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성취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일반적으로는 +HH 유형의 가치평가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일시적으로 -S 유형의 가치평가를 내세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은 한가지 유형의 가치평가들로만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유형의 가치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더욱이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그가 처하게 될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동기에 연합된 가치평가가 다른 동기에 연합된 가치평가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개인이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의 동기와 타자접속을 향한 열망의 동기를 명료하게 변별할 수 있어서 자신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동기를 배경으로 밀어내고 동시에 다른 동기를 전경으로 떠올릴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만일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이 오직 한가지 유형의 가치평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치평가를 해석할 때에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오로지 +HH 유형이나 -LL 유형의 가치평가만을 창조하는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그 개인이 자기도모를 위한 동기의 성취와 타자접속을 위한 동기의 성취 사이를 변별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구분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정서적인 이유를 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HH 유형의 가치평가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지향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지라도,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높은 정도의 유연성을 성취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Hermans(1987, 1998)의 가치평가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가치평가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가치평가의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우선 가치평가이론의 기본 개념과 가치평가의 구성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였고, 가치평가에 연합된 정념 패턴의 구조에 따라서 가치평가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그 각각에 반영된 심리적 특성을 비교적 상세히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가치평가의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기초해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자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치료적 중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언급하였다.

특정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 안에는 한가지 정념 패턴과 연합된 동일한 유형의 가치평가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유형의 정념 패턴과 연합된 가치평가들이 공존하게 마련이다. 가령,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는 항상 긍정적인 감정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 말하자면,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가치평가를 창조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가치평가의 다양성은 시간적으로 동일한 시점에서 경험하게 되는 동일한 관계의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 안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가치평가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정념 패턴과 연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들 중에서 일부는 갈등적인 관계 양상을 반영하는 -S 유형의 가치평가이거나 타인과의 접촉과정에서 극도의 무력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을 반영하는 -LL 유형의 가치평가이며, 또 다른 일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아름답지만 애처로운 상실의 아픔을 언급하는 -O 유형의 가치평가와 가장 흥미롭고 격정적인 순간을 언급하는 +HH 유형의 가치평가로 구성된다. 이처럼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 안에서 공존하는 가치평가의 다양성은 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불합리한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채 끌려 다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개인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에 처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될 때에, 그는 그러한 관계 속에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가치평가요소 이외에도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거나 이끌었던 또 다른 가치평가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럼에도, 파트너와의 긍정적인 경험은 그 순간 그의 배경 속으로 잠겨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긍정적인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영원히 사라진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가치평가의 서로 다른 정념 패턴은 한 개인의 기본 감정이 자기 통제력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반영한다. 예컨대, -LL 유형의 가치평가는 기본적인 불안 감정과 강하게 연합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자신이 갇힌 상태에서 홀로 버려졌다는 각성상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자기탐색 과정에서 -S 유형 및 -O 유형의 가치평가를 구성한 개인들에게서도 불안이 자

주 나타나는데, 이들 불안의 유형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S 유형의 가치평가들을 지닌 개인은 주로 자신의 공격적인 충동에 관해서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개인은 자기통제력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자신이나 다른 어떤 이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좀더 일반적으로는 자기도모를 향한 투쟁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유형의 불안은 사회적 규범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종 수치심이나 죄의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O 유형의 가치평가를 지닌 개인은 유의미한 타인들의 상실이나 분리 또는 이러한 것의 예감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 또 다른 불안은 오히려 타인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짐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과잉 의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타인과 매우 가까워질 때 야기되는 친밀감에 대해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기도 하는데, 타인과의 친밀감은 곧 자율성의 상실 그리고 좀더 일반적으로는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의 포기를 시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의미한 타인의 상실이나 친밀감에 대한 위협에서 비롯되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자신이 홀로 버려졌다거나 버려질 수 있다고 느낄 때에는 -LL 유형의 정념 패턴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을 분석할 때에는 좀더 유연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HH 유형의 가치평가는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과 타자접속을 위한 열망의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가 모두 충족된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개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행복과 연합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HH 유형의 가치평가를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거나 최종적인 목표로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이 오직 한가지 유형의 가치평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의 삶은 매우 경직된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는 하나의 고정된 위치에 머물러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환경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개인이 자신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어느 정도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의 가치평가 시스템은 결코 고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은 한가지 유형의 가치평가들로만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유형의 가치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더욱이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그가 처하게 될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동기에 연합된 가치평가가 다른 동기에 연합된 가치평가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개인이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의 동기와 타자접속에 대한 열망의 동기를 명료하게 변별할 수

있어서 자신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동기를 배경으로 밀어내고 동시에 다른 동기를 전경으로 떠올릴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결코 +HH 유형의 가치평가는 가치평가 시스템의 유일한 구성요소가거나 최종적인 모습으로서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HH 유형의 가치평가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지향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지라도,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가치평가 시스템에서 높은 정도의 유연성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비록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을지라도,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의 동기와 타자접속에 대한 열망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서로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령,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적절한 반응이 간섭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 동기 중에서 어느 한쪽을 잠시 포기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견하면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위협적인 세력과 결합하고자 하는 감정을 용인하게 될 경우에 반응의 효과성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기유지를 위한 반응이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이 특별히 미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신비로움을 충분히 경험하고자 한다면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을 잠시 접어둔 채 직접적인 경험 세계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이 완전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의 동기와 타자접속을 위한 열망의 동기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 S 동기에 연합된 가치평가와 O 동기에 연합된 가치평가의 양쪽 모두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을 재구성할 때 변화의 방향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인 자기탐색을 통해서 특정한 유형의 정념 패턴과 강하게 연합된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성한 개인은 일정한 변화의 통로를 거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가령, 자신의 가치평가 시스템에 포함된 가치평가의 대부분이 -LL 유형의 정념 패턴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많은 미해결의 과제와 불평을 호소하는 개인은 전형적으로 -S 유형이나 +S 유형의 가치평가로 이동한 후 점차적으로 +HH 유형의 가치평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차적인 자기탐색 과정에서 -O 유형의 가치평가에 의해서 유의미한 타인의 상실에서 오는 불안과 죄의식을 호소하

는 개인은 치료적 경험이 성공적이라면 대개 자기도모를 위한 투쟁의 동기를 북돋우고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는 상담과정에서 S 동기의 발달이 O 동기의 발달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상담 장면에서 모든 내담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HH 유형의 가치평가가 한 개인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유일한 구성요소 또는 최종적인 모습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가치평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좀더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송재홍(1999a). 상담과 심리치료에 있어서 구성주의의 도전. 한국상담교육학회, 상담교육연구, 제1권 제1호, pp. 184-201.
- 송재홍(1999b). 구성주의와 설화요법: 상담과 심리치료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28집, pp. 59-86.
- 송재홍(1999c). 자기적면법을 이용한 가치평가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 대학상담연구, 제10권 제1호, pp. 125-149.
- Hermans, H. J. M.(1987). Self as organized system of valuations: Toward a dialogue with the pers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0-19.
- Hermans, H. J. M.(1988). On the integration of idiographic and nomothetic research method in the study of personal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56, 785-812.
- Hermans, H. J. M.(1998). meaning as an organized process of valuation: A self-confrontational approach. In P. T. P. Wong & P. S. Fry(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317-33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Hermans, H. J. M. & Hermans-Jansen, E.(1995). Self-narratives: The constructionism of meaning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Hermans, H. J. M., Hermans-Jansen, E., & van Gilst, W.(1985). De grond- motieven van het menselijk bestaan: Hun expressie in het persoonlijk warderingsleven [The basic motives of human existence: Their expression in personal valuation]. Lisse, Th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Hermans, H. J. M. & van Gilst, W.(1991). Self-narrative and collective myth: An analysis of the Narcissus stor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423-440.
- Howard, G. S. & Conway, C. G.(1986). Can there be an empirical science of volitional action? American Psychologist, 41, 1241-1251.
- James, W.(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vol. 1).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Merleau-Ponty, M.(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ullimard. (Translated into English by Smith, C.[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arry, A.(1997). Why we tell stories: The narrative construction of reality.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27(2), 118-127.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rbin, T. R.(1986). The narrative as a root metaphor for psychology. In T. R. Sarbin(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pp. 3-21). New York: Praeger.
- Smith, C.(1997). Introduction: Comparing traditional therapies with narrative approaches. In C. Smith & D. Nylund(Eds.). Narrative therapies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pp. 1-52).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von Glasersfeld, E.(1989). Constructivism in education. In T. Husen & T. N. Postlethwaite(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Research and study(pp. 162-163). New York: Pergamon Press.
- Watkins, M.(1986). Invisible guests: The development of imaginal dialogu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